

출산 20분 전까지 임신 사실 모른 여성



아이를 7명이나 출산 했지만 8번째 아이의 임신 사실을 출산 직전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지 20분만에 아이를 출산한 30대 여성 사연이 화제이다.

지난 23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잉글랜드 중부 쉐프턴에 사는 사프린 스노우(33·사진)는 2년 전인 2017년 9월,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출산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스노우는 분만실에 들어간 지 단 20분 만에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다. 스노우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5명의 아이를 낳았고, 현재 남편인 조쉬와 재혼해 두 아이를 더 출산했다.

스노우는 신장 결석을 가지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복통도 이 영향 때문이라고 여겼다. 무엇보다 자신도 모르는 임신 기간 내내 특별한 신체 변화가 없었다. 호르몬 조절을 위해 체내에 피임기구를 이식한 그녀는 생리가 없었던 것 역시 그 영향이라고 믿었다. 피임기구 이식 전에 아이가 생겼지만, 생리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유다.

신장 결석 탓에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가 그녀의 임신 사실을 왜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스노우는 "의사를 탓할 생각은 없다."면서 "현재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밝혔다.

스노우처럼 임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증상을 '수수께끼 임신' (Cryptic Pregnancy) 또는 '언노운 임신' (Unkown Pregnancy)라고 부른다. 임신 20주가 될 때까지 임신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여성은 475명 중 1명 꼴이며, 7225명의 임신부 중 한 명이 '수수께끼 임신'으로 아이를 낳는다.

태아가 자궁에서 건강하게 성장했음에도 배가 불러오지 않는 정확한 이유를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키가 크거나 상체가 긴 여성들의 경우 배 속의 세로 공간이 넓어 상대적으로 배가 덜 나와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륙 직전 비행기 날개에 오른 이유

한 나이지리아 남성이 이륙 직전의 여객기 날개에 기어올라 객실로 침입하려 붙잡혔다.

지난 19일 나이지리아 라고스 주 이케자에 있는 무르탈라 무하메드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리버스주 포트하키투로 향하려던 아즈만항공 보잉 373 여객기 날개에 신원미상의 남성이 올라타 이륙이 중단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사건 5일 전에도 계류장을 활보하다 공항 경비대에 체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지리아연방공항공사(FAAN) 측은 불과 며칠 전 체포됐던 남성이 다시 공항으로 들어와 계류장을 활보하며 여객기까지 접근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4명의 고위급 보안 책임자를 정직시켰다고 전했다.

이 남성이 왜 여객기 날개에 올라타 기내로 침입하려 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직 없지만, 체포 직후 그가 '가나로 여행을 가려고 그랬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동이 벌어진 무르탈라 무하메드 국제공항에서는 지난 2017년에도 한 10대 소년이 보잉 747 여객기 바퀴홀더에 몸을 숨기고 12시간을 날아가 영국 런던에 도착한 사건이 있었다. 1만 미터 상공에서 자칫 저산소증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당시에도 공항 보안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어머니 구하려고 아파트 15층 기어올라간 아들

불길 속에 갇힌 엄마를 구하기 위해 아파트 외벽을 타고 15층까지 올라간 아들의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있다.



지난 22일 CNN은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난 19층 아파트 화재 소식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다. 영상을 통해 공개된 이 사건은 지난 18일 밤 일어났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통제된 아파트에 들어가 외벽을 타고 한 남자가 위험천만한 모습으로 기어올라가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

이 남성은 아파트 발코니를 타고 1층에서부터 한층 한층 위로 오르기 시작해 15층에 이르러서야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목숨을 걸고 아파트 15층에 올라간 사연은 이렇다. 화재가 있던 이날 저녁 저메인(35)이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그는, 어머니가 불길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여동생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이에 그는 단숨에 아파트로 달려갔으나 경찰이 주위를 통제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이에 그는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가기로 했다. 그는 절단기를 들고 아파트를 오르기 시작해 결국 어머니 집이 있는 15층에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저메인은 "엄마는 병환으로 몸져 누워 침대에서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였다."면서 "내가 방으로 들어

가니 '불도 진화됐고 건강에도 이상이 없다'며 오히려 나를 안심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통제를 무시하고 들어와 체포될 수 있으니 빨리 내려가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어머니 건강을 확인한 저메인은 다시 아파트 외벽을 타고 아래로 내려갔으며 이 과정은 동영상으로 촬영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다.

필라델피아 경찰은 "특별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메인에 대해서는 더이상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